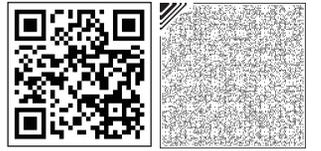


김포마루+



2021 12

MONTHLY MAGAZINE vol.226

발행인 김포시장 발행처 김포시청 홍보담당관 주소 10109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구독문의 031-980-2066 김포시와 함께하는 세상읽기 김포시 뉴스포털(김포마루) gimpomaru.gimpo.go.kr
김포마루웹진 김포가 좋다 m.post.naver.com/gimpo2010 뉴스레터 매일 첫째, 셋째 주 수요일 메일 발송 우편 구독신청(무료) 전화 031-980-2066 팩스 031-980-2059 홈페이지 gimpo.go.kr
소통하는 도시, 김포 SNS 페이스북 facebook.com/gimpocity.kr 블로그 blog.naver.com/gimpo2010 트위터 twitter.com/gimpomaru 인스타그램 instagram.com/gimpocity

FULL LIFE GIMPO

시민행복 김포의 가치 두 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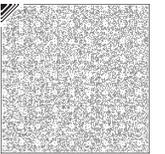
김포FC

창단 최초 우승컵 안고 K리그2 진출

2021 K3 K2 LEAGUE AWARDS

2021 K3 LEAGUE

관련기사 2-3면



우승 드라마의 서막 김포FC 마지막 홈경기를 가다

우리들의 축구팀 김포FC는 지난 2013년 김포시민축구단으로 창단해 현재 세미프로인 K3리그 소속이다. 지난해 적토마 고정은 감독을 영입하고 올해 재단법인을 설립한 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올 시즌 상반기 K3리그 1위에 등극했고, 리그 최종 2위(14승 10무 4패)에 올랐다. 리그 3위 FC목포와의 플레이오프에서는 2대 0으로 승리하고,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 천안시축구단을 1승 1무로 물리치고 창단 최초 우승의 역사를 썼다.

글 김병혁 시민기자

11월 홈경기 500명 선착순 무료로 초대

김포FC는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11월부터 마산동 솔터축구장 홈경기에 김포시민 500명을 선착순 무료로 초대했다. 11월 6일 울산시민축구단을 시작으로 같은 달 9일 화성FC, 20일 플레이오프 FC목포, 24일 천안시축구단과의 챔피언 결정전 1차전에 500명 모두 입장하는 등 시민들의 축구 열기를 내뿜었다.

솔터축구장은 관중석 1천76석 규모로 올해 4월에 개장됐지만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무관중 경기였던 아쉬움을 리그 중반에 달랠 수 있었다.

구단 관계자는 “관중석의 10%~30% 정도로 부분 입장은 있었으나 못 들어오는 시민이 많았다”며 “위드 코로나에 맞춰 솔터축구장 개장 이래 최대 규모로 무료입장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경기 진행

챔피언결정전 1차전날 솔터축구장 입구에서는 체온측정과 안심콜을 한 뒤 ‘입장확인’ 스티커를 소매에 붙여줬다. 관중석은 1명씩 간격을 두고 앉아 거리두기를 지켰고, 간혹 지인끼리 붙어 앉으면 보안요원이 즉시 떨어져 앉게 안내했다.

경기가 시작되고는 선착순 500명 관중이 꽉 들어찼다. 유소년 축구선수와 데이트하는 연인, 노부부, 친구 사이 등 객석에 다양한 시민이 앉았다. 특히 타 구장과 비교할 때 아이들과 함께 온 젊은 가족 단위 관중이 매우 많았다. 김포시는 평균나이가 39세로 젊은 층이 많은 도시인 데다, 내년에는 프로리그(K리그2) 진출과 함께 FIFA 월드컵까지 열리기 때문에 축구 열기가 갈수록 달아오르고 있다.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너무 재미있어요!”

“김포 FC, 짜짜~짜짜~짜”

방역수칙 때문에 육성응원은 금지됐지만, 응원단장의 리드와 북소리에 맞춰 관중들은 솔터축구장이 떠나갈 듯 박수를 쳤다. 무릇 경기장은 관중이 있어야 제맛. 관중의 응원이 그리웠을 선수들은 박수와 함성에 더 힘차게 그라운드를 누볐다.

1차전 전반이 끝나고는 가수 하동근과 진시몬이 부른 공식 응원가 ‘김포의 날개’가 울려 퍼졌다. 경쾌한 선율에 절로 어깨춤이 들썩였다. 당장 마스크 벗

고 따라부르고 싶을 만큼 신이 났다. 경기도 박진감 넘쳤다. 축구경기를 처음 보리왔다는 초등학교생은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다.

“축구가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다음에도 김포FC 축구 꼭 보러 올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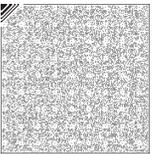
일상이 완전히 돌아와 시민들과 김포FC가 원팀(One Team)이 돼 내년 프로리그에서 우승하기를 기원한다.



접종확인 안심스티커

방역 지침을 잘 지켜서 입장하고 있는 김포시민들





김포FC 창단 첫 K3리그 '우승' 후반 추가시간 기적의 연속 골

김포FC가 각본 없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됐다. 기적 같은 연속골로 창단 후 K3리그 첫 정상을 차지하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다. 치열했던 K3리그 챔피언결정전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린 그날의 감동을 담았다.

글 편집실(K)

영화 같은 연속 극장골로 극적 우승

최강팀을 상대로 이만하면 잘했다고들 했다. 올 시즌 내내 쾌속 질주하며 리그 2위를 수성하고, 플레이오프에서 또 다른 강호를 2대 0으로 누르고 올라온 터였다. 원정 2차전에서 두 골을 뒀진 채 숨죽이고 있던 시각,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기적은 시작됐다.

다음 시즌 프로리그 진출을 선언한 김포FC가 K3리그 챔피언결정전에서 후반 인저리타임 영화 같은 연속 극장골로 우승컵을 안았다. 두 번째 골이 터지고 종료 휘슬이 울리는 순간 선수와 코칭스태프는 그라운드에 엉켜 눈물을 쏟아냈다. 중계방송을 시청하던 김포시민들에게도 큰 선물이 됐다.

고정운 감독이 이끄는 김포FC는 지난 11월 27일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리그 1위 천안시민축구단과의 챔피언결정전 2차전에서 후반 추가시간 정의찬과 상대 자책골(박경록 기여)을 연달아 넣으며 2대 2로 비겼다. 이보다 앞서 11월 24일 김포솔터축구장에서 치른 1차전을 1대 0으로 승리한 김포FC는 1·2차전 합계 스코어 3대 2로 극적인 우승을 차지했다.

치열했던 벼랑 끝 90분 전투

1·2위팀 간 벼랑 끝 대결답게 경기는 90분 내내 치열했다. 이날 김포FC는 골키퍼 이상욱을 비롯해 박경록, 김태한, 이용, 이중호, 이슬찬, 조항기, 이강연, 이재권, 손석용, 정의찬이 출격했다. 벤치에는 골키퍼 김진영과 윤상혁, 백승우, 윤민호, 조익성, 한의혁이 대기했다.

1차전에서 패한 천안은 경기 초반부터 김포FC를 거칠게 몰아붙였다. 김포는 전반 5분 손석용이 페널티 에어리어 바깥에서 상대 선수의 공을 빼앗아 강력한 중거리포를 날렸으나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천안은 전반 28분 조주영의 오른발 슛이 골문을 가르며 1대 0으로 앞서나갔다. 골문 근처까지 던져진 천안의 스로인이 몇 차례 헤딩 혼전을 거듭하다가 조주영이 낚아채 골을 넣었다.

김포는 전반 추가시간 만회골 기회를 잡았다. 김태한이 중앙선에서 길게 올린 공을 정의찬이 왼쪽에서 낮게 깔았고, 손석용이 발을 갖다 댔으나 골문 오른쪽으로 아쉽게 벗어났다.

홈구장의 기세를 등에 업은 천안은 후반 13분에도 이에찬의 오른발 슛이 골망을 갈라 2대 0으로 달아났다. 코너킥으로 올라온 공이 골문 앞으로 떨어지자 이에찬이 논스톱으로 때려 넣었다.

김포는 지치지 않았다. 후반 30분 김태한이 오른쪽에서 날카롭게 올린 크로스를 조항기가 발을 짚어 맞췄지만 골문 위로 살짝 넘어갔다.

추가시간에 2골 폭발 "말도 안 되는 경기"

드라마의 시작은 후반 36분부터였다. 천안 조주영과의 1대 1 위기를 김포 이상욱 골키퍼가 쳐냈고, 곧바로 천안 김종석이 골문으로 강슛을 날렸으나 이상욱이 또 한 번 슈퍼세이브로 막아냈다.

경기는 후반 45분을 넘어서며 패색이 짙어갔다. 추가시간을 불과 1분 30초 남겨놓고 김포는 전진했다. 중앙선에서 높게 올라온 공이 천안 골문 앞에 떨어지자 정의찬이 쇄도하며 오른발로 골망을 뚫었다. 거기까지인 줄 알았다.

김포는 멈추지 않았다. 추가시간도 전부 소진하고 5초가 지났을 무렵, 이상욱 골키퍼가 우리 진영에서 마지막으로 차올린 공을 박경록이 놓치지 않고 골

문에 집어넣어 상대편 발을 맞고 들어갔다. 천안 선수들은 그대로 주저앉았고, 김포 선수들은 경기장 사방을 뛰어다니며 축구인생 최고의 기쁨을 만끽했다. 중계진도 "말도 안 되는 경기"라며 함께 환호했다. 김포 FC는 그렇게 창단 후 첫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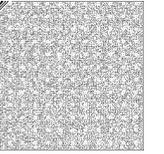
김포FC 2021년 K3리그 경기 결과

('21. 11. 15. 기준)

경기일정	경기명	결과
3. 20.(토) 15:00	FC목포 vs 김포FC	1:1(무)
4. 3.(토) 15:00	창원시청축구단 vs 김포FC	2:3(승)
4. 10.(토) 15:00	경주한수원축구단 vs 김포FC	0:0(무)
4. 17.(토) 15:00	김포FC vs 부산교통공사축구단	1:2(패)
4. 24.(토) 15:00	대전한국철도축구단 vs 김포FC	2:0(패)
5. 1.(토) 15:00	김포FC vs 강릉시민축구단	0:0(무)
5. 8.(토) 15:00	천안시축구단 vs 김포FC	0:1(승)
5. 15.(토) 15:00	김포FC vs 청주FC	2:0(승)
5. 22.(토) 15:00	파주시민축구단 vs 김포FC	0:1(승)
5. 29.(토) 15:00	김포FC vs 양주시민축구단	2:0(승)
6. 4.(금) 19:00	화성FC vs 김포FC	0:1(승)
6. 9.(수) 19:00	김포FC vs 평택시청FC	3:0(승)
6. 12.(토) 19:00	울산시민축구단 vs 김포FC	0:1(승)
6. 19.(토) 17:00	김포FC vs 김해시청축구단	1:2(패)
6. 30.(수) 19:00	김포FC vs FC목포	2:1(승)
7. 24.(토) 19:00	김포FC vs 창원시청축구단	2:2(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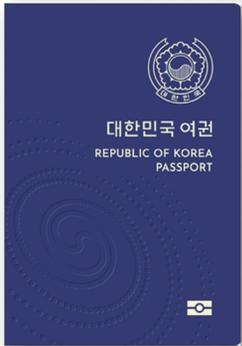
경기일정	경기명	결과
8. 13.(금) 19:00	김포FC vs 경주한수원축구단	1:0(승)
8. 20.(금) 19:00	부산교통공사축구단 vs 김포FC	0:0(무)
8. 27.(금) 19:00	김포FC vs 대전한국철도축구단	1:1(무)
9. 3.(토) 19:00	강릉시민축구단 vs 김포FC	0:2(승)
9. 10.(금) 19:00	김포FC vs 천안시축구단	3:2(승)
9. 15.(수) 19:00	청주FC vs 김포FC	0:0(무)
9. 25.(토) 19:00	김포FC vs 파주시민축구단	3:1(승)
10. 2.(토) 19:00	양주시민축구단 vs 김포FC	0:0(무)
10. 29.(토) 19:00	평택시청FC vs 김포FC	0:1(패)
11. 6.(토) 15:00	김포FC vs 울산시민축구단	2:2(무)
11. 9.(화) 19:00	김포FC vs 화성FC	1:0(승)
11. 13.(토) 14:00	김해시청축구단 vs 김포FC	1:1(무)
11. 20.(토) 14:00	김포FC vs FC목포	2:0(승)
11. 24.(수) 14:00	김포FC vs 천안시축구단	1:0(승)
11. 27.(토) 14:00	천안시축구단 vs 김포FC	2:2(무)

정규리그 28전 14승 4패 10무 / 챔피언 결정전 합계 3:2 우승



ISSUE 1

김포시, 12월 21일부터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김포시는 오는 12월 21일부터 보안성·내구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을 전면 시행한다.

차세대 전자여권은 현행 전자여권보다 더 많은 최신 보안요소를 추가 적용함으로써 보안성을 극대화함은 물론, 인적사항 기재면은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로 사용하여 내구성을 강화했다. 사용자가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는 사증의 면수가 기존 24/48면에서 26/58면으로 증가됨에 따라 기존의 사증란 부착제도는 폐지되며, 별도 신청자에 한해 개인정보면에 출생지 기재도 가능하게 된다. 또한 현행 여권과 달리 개인정보면의 여권번호를 레이저로 각인하여 촉각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이후에도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전자여권은 계속 사용이 가능하나, 해외 출입국 시 상당수의 국가에서 입국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의 잔여 유효기간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기존 전자여권 사용 시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의 입국허가요건 및 여권의 유효기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여권에 부착된 외국 사증(VISA)이 신여권 발급 이후에도 유효한지 여부는 여권 사용자가 직접 주한 외국 대사관(해외에서는 해당국의 재외공관)에 문의해야 한다.

민원여권과 980-2700

ISSUE 2

김포에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체험공간' 조성



코로나19 이후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게 김포시에서는 11월 9일부터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용 키오스크 체험공간'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교육용 키오스크'는 음식 주문, 공연·교통수단 티켓예매, 민원발급 등 5개 분야 9개 항목으로 구성된 체험용 무인정보 단말기로, 실생활에서 쉽게 접하게 되는 무인기기를 실제 상황처럼 직접 눌러보며 사용법을 체험할 수 있으며, 12월 10일까지 '디지털배움터'와 연계하여 키오스크 사용법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키오스크 체험공간'은 사우동, 풍무동, 장기동 행정복지센터에 조성되어 있으며, 향후 수요에 따라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로 이동하여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보통신과 980-2082

ISSUE 3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김포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2월부터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경지원을 해왔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대상은 경작, 주거 등 비영업용은 제외하고 김포시 소유의 건물 또는 토지를 영업 용도로 임차한 자로 영업중단피해에 대해 임대료 전액감면과 기간연장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영업손실 피해에 대해서는 임대료의 80%까지 감경지원이 가능하다.

당초 지난해 2월부터 12월 말분의 임대료에 대해 지원했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올해분 임대료까지 추가로 연장지원을 결정했다. 감면신청기한은 2022년 1월 28일까지 각 부서 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회계과 980-2730

단 신 뉴스

대곶면에 세 번째 행복마을관리소 개소

김포시는 관내 월곶면, 김포본동에 이어 대곶면에 세 번째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를 개소했다. 대곶면 행복마을관리소(대곶면 주민자치센터 내 지하 1층)는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며 △안심귀가 및 아동 등·하교 서비스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화재 및 재해대비를 위한 안전 순찰 △간단한 집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 지원 서비스를 비롯해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민협치담당관 980-2266

김포시, 지역 예술인 대상 3차 생활·경영안정지원금 지급

김포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연, 전시 등의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예술인들을 대상으로 3차 생활·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조건은 지난 2차 지원 때의 내용과 동일하며 공고일(11월 15일) 전일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온라인(이메일) 또는 방문(문화예술과)으로 12월 17일까지 접수 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문화예술과 980-24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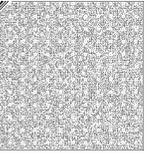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납부기간 : 12. 16. ~ 12. 31.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2021.12.1.) 현재 차량 등록원부상의 소유자
※ 부과외 대상 : 연납차량 및 경차, 화물차 등 연세액 10만 원 미만 차량
- 납부방법 : 은행, 가상계좌, ARS카드, 인터넷, 스마트폰,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

은행 납부	CD/ATM에 현금(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투입하여 조회 및 납부
가상계좌 납부	납세자 고유의 가상계좌로 이체
ARS카드 납부	☎ 1644-0704 (본인 / 타인카드 납부 가능)
인터넷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이용
스마트폰 납부	스마트위택스, 간편 결제사업(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및 금융사업을 통한 납부
지방세입계좌 납부	입금은행을 [지방세입] 선택 후 [전자납부번호]를 계좌번호에 입력

※ 지방세는 납부하시면 추소가 불가능합니다.

김포시 지방세 안내 1644-8704
자동차세 담당자 980-2034, 2032



ISSUE 4

김포한강신도시 금빛수로 라베니체에 팔당원수 공급 시작



김포한강신도시 금빛수로와 라베니체에 팔당원수 공급이 시작됐다.

이로써 한강신도시 중심을 가로지르는 2.7km의 금빛수로와 2.2km의 가마지천은 물론 신도시 전체 10km에 걸쳐 싹틔줄처럼 이어진 실개천과 10만㎡의 호수공원에 사시사철 맑은 물이 공급된다.

당초 농업용수만으로 수체계시설을 가동하다 보니 유지용수 부족과 악취 민원이 이어졌고 총 8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고촌부터 장기동 금빛수로 수질정화 시설까지 약 13km 구간에 용수관로를 연결할 수 있었다. 이번 공사로 한 달에 약 4만 톤의 유지용수를 확보함으로써 수체계시설 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수로도시의 이미지 개선은 물론 주변 관광 인프라와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공원녹지과 980-2346

ISSUE 5

나래울공원 모험놀이터 개장



김포시는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에 발맞춰 어린이 놀이 일상회복 증진을 위해 나래울공원(운양동 1259-1)에 신나는 모험 놀이터를 개장했다.

나래울공원은 갈대밭으로 이루어져 단조롭던 공원을 가족친화형 공원으로 개선하여 공원 이용률을 높이고자 2021년 5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10월 마무리됐다. 이번 사업으로 운양지하차도의 소음을 감소하기 위한 방

음식재, 그늘 및 휴식 제공을 위한 그늘막 식재와 다년생으로 이루어진 초화원을 구성하고, 어린이에게 신나는 놀이환경을 제공하고자 모험놀이터를 조성했다. 모든 어린이가 즐겨 찾을 수 있도록 특색있는 어린이 놀이공간을 만들기 위해 약 9m의 대형 미끄럼틀과 바구니 그네도 설치했다.

공원관리과 980-5641

ISSUE 6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안내

겨울철 수도계량기가 얼면 수도물이 나오지 않아 불편을 겪게 됩니다. 미리미리 수도 계량기함을 보온하여 불편 없는 겨울 보내세요.

• 계량기 동파 예방 방법

- 계량기함(통) 내부 수도관 관통구 등 틈새를 밀폐한다.
- 계량기함(통) 내부를 한옷 등의 보온재로 채운다.
- 뚜껑 부분은 보온재로 덮고 비닐커버 등으로 넓게 밀폐한다.
- 계량기 동파가 우려되는 혹한기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을 흐르게 하고, 수조 등에 받아서 사용한다.

• 계량기 및 수도관이 얼었을 때 조치요령

- 50℃ 이상 뜨거운 물을 바로 사용하면 계량기나 수도관이 파열되므로 주의하고,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하거나 미지근한 물로 점차 따뜻하게 녹여야 한다.

• 동파신고 문의 :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계량기 동파 : 수도요금팀 980-5890, 인입급수관 결빙 : 급수관리팀 980-5133~5135

단 신 뉴스

하수도 사용료 인상 및 감면 안내

김포시는 2019년 6월 조례 개정에 따라 연차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능 확장에 따른 시설 확충과 안전한 하수처리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 2월 고지분(1월 검침분)부터는

업종별	사용량(㎡/월)	㎡당 단가(원)
가정용	0~20	585
	21~30	806
	31 이상	1,157
일반용	0~50	910
	51~100	1,430
	101~300	1,534
	301~1,000	1,872
대중탕용	1,001 이상	2,223
	0~1,000	1,066
	1,001~1,500	1,222
	1,501~2,000	1,456
	2,001 이상	1,703

• 관련법규 :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 제2항 (2019. 6. 26. 개정)

- 하수도 복지 감면 안내 : 월 사용량 10㎡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로 등록된 차상위계층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주민등록법」상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된 가구

하수과 980-54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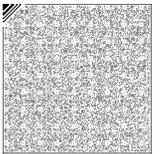
2022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김포시는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12월 6일(월)부터 12월 17일(금)까지이며,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등 4가지 분야, 총 42개의 사업에 2,369명을 모집한다.

참여자격은 공익형 사업 기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원칙으로 하며, 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도 조건에 따라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생계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는 참여가 제한된다.

접수방법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및 대한노인회, 김포시니어클럽,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신청서,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김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인장애인과 980-2206



ISSUE 1

김포시의회 코로나19대책 특위, 현장 목소리 듣고 위드코로나 해답 찾는다



김포시의회 코로나19대책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 배강민)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위드코로나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

특위는 지난 11월 18일 코로나19로 학교급식이 중단되며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었던 김포친환경학교급식출하회(이하 출하회)와 코로나 종식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노력하고 있는 보건소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고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출하회는 “친환경 분야 농업인들 역시 김포시 지역경제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다른 소상공인에 비해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안타깝다”며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 관련 전담 부서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대비한 농자재, 저온저장창고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소에서는 “위드코로나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 역학조사 전담 인력 충원과 신속 이송체계 및 자가격리자 물품 지원 인력 등 인력 충원과 그에 따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현장에서 배강민 위원장은 “농업 분야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친환경 농산물 정책 등에 좀 더 신경을 쓰겠다”며 “보건소에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므로 향후 예산편성 등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SSUE 2

김포녹색어머니연합회와 정담회 개최



김포시의회 교육환경개선 연구단체(대표의원 김종혁, 이하 연구단체)가 지난 10월 25일 김포녹색어머니연합회(회장 정미라, 이하 연합회)와 정담회를 갖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연합회는 교육 현장에서 접한 경험을 바탕으로 △스쿨존 불법 현수막 단속 △백팩 반사카드 및 안심귀가 로고 라이트의 확대 △무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학교 주변 그늘막

과 온실 텐트 설치 등 학생 교육 환경개선책과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교통법규·안전 교육 △교통안전 개선을 논의할 공식 기구 설치 등을 요청했다.

또한 연구단체가 중점을 두고 있는 지역 고교 평준화와 관련한 논의에서 연합회는 △원거리 배정과 교통문제 △평준화와 관련한 정확한 내용 전달 △학생 교육의 하향 평준화 우려 등과 함께 학생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학교의 설립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김종혁 대표의원은 “최일선에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봉사하고 계시는 연합회원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오늘 제안하신 내용들을 검토해 담당 부서와 논의하며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의회 교육환경개선 연구단체는 김종혁 의원을 대표로 김인수·홍원길·한종우·유영숙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9월 13일 첫 모임을 가지고 과밀학급 발생에 대한 개선방안과 고교평준화 도입을 과제로 연구 방향을 정해 11월까지 연구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단 신 뉴스

2022년 본예산 심사 앞두고 심화교육 진행

김포시의회가 2022년도 예산안이 다뤄지는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11월 22일 관련 심화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의회연구소 장인식 교수를 강사로 초빙해 예산안 심사 시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본회의의 SNS 생방송 안내

김포시의회에서는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신속·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시의회 본회의 현장을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생방송 시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 시청방법

- 김포시의회 페이스북

www.facebook.com/gimpocouncil/ 접속 후 해당 영상 재생

※ 임시회(정례회) 일정은 페이스북에 사전 안내하고 있음.

• 문의 : 980-2478, 2487

김포시의회 홍보용 카드뉴스 제작

김포시의회에서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시의원 발의하는 조례 등을 알기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고자 다양하고 흥미로운 카드뉴스를 만들어 시의회 홈페이지,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제작된 카드뉴스를 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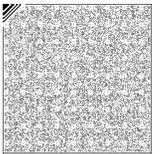
• 시청방법

- 페이스북 : www.facebook.com/gimpocouncil/

- 홈페이지 : www.gimpo.go.kr/council/index.do

메뉴 : 열린마당 - 의회홍보 - 카드뉴스

• 문의 : 980-2487



김포시의회, 시민 복리 증진이 최우선 과제!

2021년 시민 삶과 이어진 의원발의 조례 모아보기



시 민 과 함 께 하 는 든 든 한 의 회

의회는 의결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 시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면서도 중요한 활동이 자치입법 활동이다. 국회에서 법을 만든다면, 지방의회에서는 조례를 만들며 조례가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은 지방자치가 활성화될수록 더 커진다.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의 범위가 커지는 만큼 김포시의회에서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조례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2021년에도 시민의 삶과 관계된 의원발의 조례가 이어졌다. 어떤 조례가 있었는지 분야별로 살펴본다.

정리 김포시의회

시민 일상의 개선 및 안전을 위한 활동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안 개선을 위한 노력을 먼저 살펴보자. 공원 내 분수 등 수경시설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대상을 확대 개정한 '김포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와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 설치 규정을 신설 개정한 '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다. 또한 시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시정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을 확대 보완토록 개정한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시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보행 안전문화 확산조항을 추가한 '김포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으로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제정된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가 있다.

시민 먹거리와 직결되는 농업 분야 보호 활동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먹거리, 이를 1차적으로 책임지는 농업은 중요한 분야이지만 도시화로 인해 농업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에 김포시의회에서는 조례 입법활동을 통해 시민 먹거리 보호 최일선인 농업 분야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먼저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청년농업

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김포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농업인의 농업 활동 보장을 위해 농민기본소득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김포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해 농업 분야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근무여건 개선, 직업 활동 보호 등 경제 활성화 노력

직업활동 보호를 통한 지역 경제부흥 활성화 노력도 눈에 띈다. 필수 노동자들의 근무여건 보호를 위한 '김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비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인권보호를 위한 '김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 사항을 담은 '김포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등 다양한 직업군의 처우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입법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김포시 경력단절(고용중단)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통해 경제 소외 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나 지역 서점의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김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복지, 문화, 시민 인식 개선 등 다방면 살피는 활동

도움과 관심이 더 필요한 분야를 찾아 나선 노력도 돋보인다. 먼저 노약자 등의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사후 점검 조항을 추가토록 개정한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와 청력손실을 겪고 있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보청기 등 기구를 이용하지 못하

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김포시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직·간접적인 지원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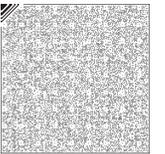
또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고, 체계적인 역사문화 관리로 지역 문화발전과 시민의 문화적 생활 향상을 위해 '김포시 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건전한 반려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김포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조례'를 제정했고,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김포시 시민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많은 시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박차

그러나 조례의 숫자도 많을뿐더러 내용이 복잡한 경우도 많아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이 조례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시민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바쁜 일상 속에 시간이 많지 않은 시민들을 위해 한눈에 쏙 들어오도록 이미지화한 카드뉴스의 형식으로 조례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를 시의회 홈페이지와 SNS에 게시해 더 많은 시민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만들어진 조례 관련 카드뉴스를 책자로 엮은 간행물을 제작해 발행할 예정으로 시민들을 위한 김포시의회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신명순 의장은 "제7대 김포시의회가 들어선 이후 시의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의 목소리 살피기 위한 조례 입법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시민의 곁에서 필요한 부분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기부문화 퍼지는 아름다운 거리 '장기동 1892' 김포시 제1호 '나눔의 거리', 지역으로 확산

지역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장기동 아파트 상가변영회가 나섰다. 이들이 십시일반 내놓은 기부 물품들은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돼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만들었다.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도 동참하면서 후원행사가 열린 거리는 식품, 생필품 등으로 가득 찼고 이곳은 곧 '나눔의 거리'가 됐다.

글 양미희 시민기자



장기동 1892번지 '나눔의 거리' 지정

매년 명절(추석, 설)마다 장기동 1892번지(청송마을 중흥S-클래스 상가) 거리는 기부 물품과 사람들로 북적인다. 지역 내 자영업자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의 나눔을 통해 주민들의 기부문화 확산은 물론 민·관 상호협력 네트워크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이에 김포복지재단은 지난 2019년 이 일대를 김포시 최초로 '나눔의 거리'로 지정했다.

나눔의 거리는 언뜻 보면 일반 거리와 별다를 것 없어 보인다. 그러나 명절마다 정(情)을 나누려는 기부 물품으로 북적인다. 이곳에 모인 물품은 형식적인 혹은 틀에 박힌 물품이 아닌, 직접 판매하는 식품이나 물품이다. 이마저 해당이 안 되는 세탁소는 세탁쿠폰을, 부동산은 선물세트를 맡긴다.

이들의 움직임을 포착한 이웃 상점들이 십시일반 동참하면서 2~3년 전부터 '상가변영회' 차원에서

움직이고, 이어 장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장기동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도 합류했다.

지역 내 선한 영향력 전파

이렇게 나눔의 거리에 모인 물품들은 혼자 사는 어르신, 한부모 가정 등 명절이 되면 더욱 외로움을 느낄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2018년부터 시작된 나눔의 거리 기부 행렬은 올해 추석, 나눔의 거리와 이웃하고 있는 호반베르디움 더퍼스트 상가 그리고 모아미래도엘가 아파트 입주민 등도 동참해 기부물품 2,534개를 22가구에 전달하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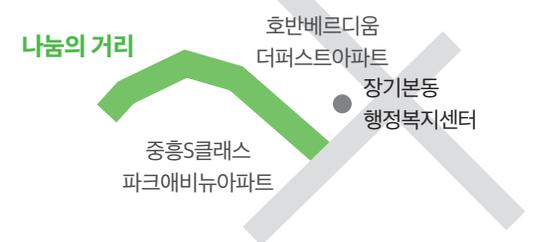
청송마을 6단지 중흥S-클래스 상가변영회 조재호 회장은 "나눔은 누구나 좋은 일이라는 걸 알고 있

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어디로 또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찾을 방법이 없어 미루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다"라며 "우리는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기관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가르침은 옛말이다. 시대가 변한 만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과 함께 한다면 그 효과는 2~3배를 넘어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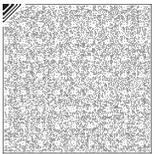
내년 명절(추석, 설)에도 나눔의 거리 기부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

나눔의 거리



2021년 추석 명절맞이 나눔의 거리 행사모습(9월 15일)





김포의 역사와 문화,

전통과 교육을 이끌어가는 마을

운양동 雲陽洞



아트빌리지(예전 한옥마을)



청명한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고운 단풍을 자랑하는 모담산, 높은 아파트 속에 처마선이 맞닿아 고즈넉한 멋을 뽐내는 한옥마을, 그리고 이제는 김포 교육 행정의 중심이 된 곳. '우리 동네 이야기'의 마지막 순서는 바로 '운양동'이다.

글 편집실(L)

좋은 산과 맑은 물이 흐르던 동네

김포읍 운양리였던 시절, 김포읍 어르신들은 운양동 사람들에게 '좋은 산의 기운이 있고, 맑은 샘이 많아 사람들이 순하고, 어질고, 착하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좋은 산은 모담산을 말하는 것이고, 맑은 물이 흘렀다는 이야기는 '샘재'나 '청수' 같은 동네 이름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샘재 마을 아이들은 김포초등학교에, 나머지 동네 아이들은 고창초등학교에 다녔다. 아이들의 놀이터 역시 모담산이었다. 높지는 않았지만 꽤 큰 산이었던 모담산에 올라 밤이나 벚꽃을 따기도 했다. 겨울에는 경사가 있는 비탈진 곳으로 올라가 비닐포대에 벚짚을 넣고 썰매를 타고 놀았다. 산 정상에는 발칸포 부대가 있었는데 철책과 함께 지뢰도 묻혀 있어 정상까지 올라가 놀지는 못했다고 한다. 여름에는 농사짓는 데 쓰고자 물을 모아놓던 수문이 있었는데 여기서 낚시와 수영, 물놀이를 하며 놀았고 팔뚝만 한 잉어가 잡히기도 했단다.

운양동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한옥마을'이다. 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듯하지만, 알고 보면 원래 5~6채 한옥이 있었는데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올림픽을 치르면서 48번 국도에 전시 효과를 노리고 한옥마을을 의도적으로 조성했다고 한다. 최근에 아트빌리지와 한옥마을로 정비되었고 김포문화원과 김포문화재단, 예술 작업공간 등이 들어서면서 김포시의 문화예술과 역사, 전통을 담아내는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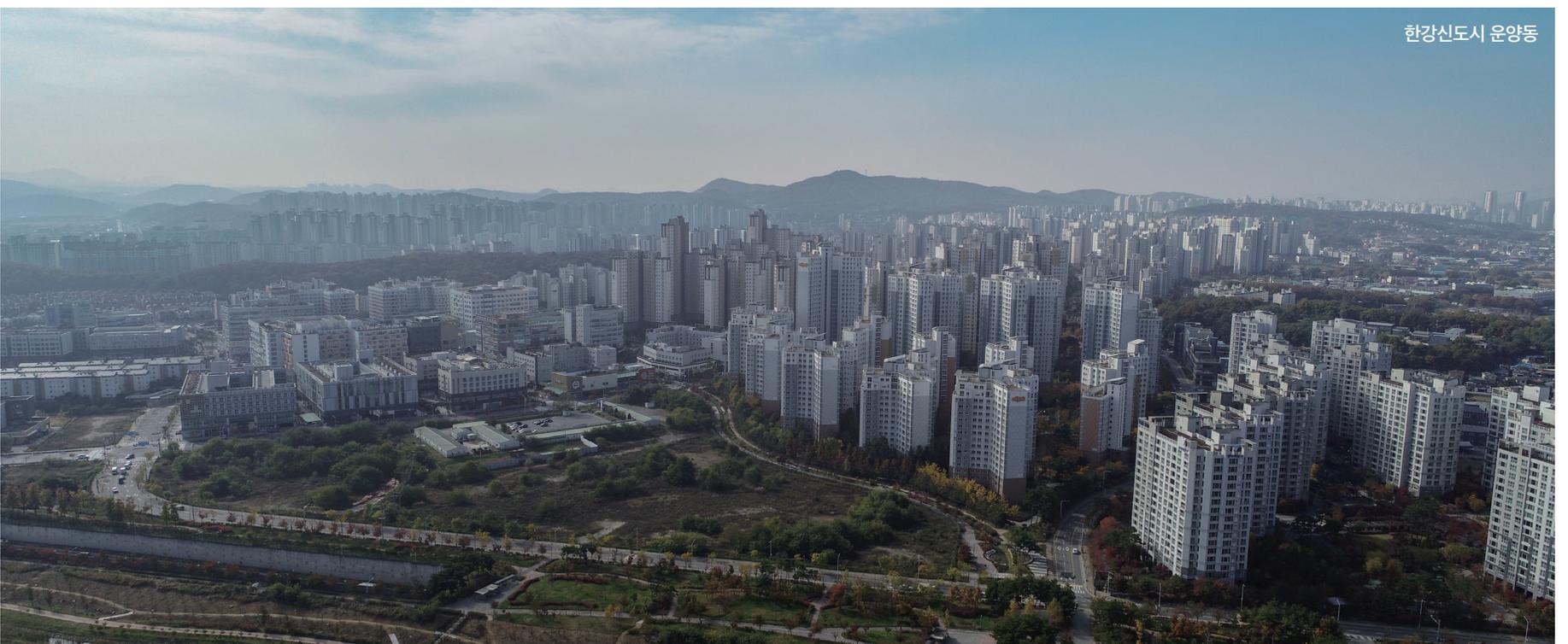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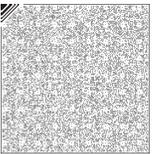
1930년대 운양동 감암동 옛 모습

철책을 넘어 역사와 문화, 교육의 중심이 되다

지난달 김포시는 한강 철책선을 제거하는 역사적인 사업을 시작했다. 운양동 역시 한강 철책으로 많은 공간이 역사 속에서 사라졌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감암포구'다. 김포는 포구마을이라 할 정도로 한강을 따라 많은 포구가 있었다. 감암포구 역시 한강변에 위치해 서울을 오가는 이들의 휴식처가 되었을 뿐 아니라, 고기잡이배가 수없이 드나들었지만 1970년대 철책이 놓이며 그 자취를 감추게 됐다. 하지만 오랫동안 이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어렵פות이 그 기억이 남아 있다. 이제 시작단계이지만 한강철책선 제거를 통해 단절되었던 역사의 흔적을 이제라도 이어가며 옛날 활기 넘쳤던 포구가 하나하나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본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김포의 교육을 이끌어가는 김포시교육지원청도 운양동으로 이전했다. 급속한 인구유입으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어렵지만 교육지원청은 김포의 미래가 될 아이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한강신도시 운양동





지나가는 바람은 기억해줄 거야 김포의 관문 ‘천등고개’에서



어느덧 12월이다. 찬 걸음으로 달려온 한 해, 고갯마루에서 잠시 쉬어가자.

천등고개는 김포한강로가 열리기 전 서울 가는 길에 거쳐 가는 마지막 고개였다. 지금은 고개라고 하기 민망한 낮은 구릉에 불과하지만 예전엔 꽤나 험하고 깊었다. 서울에서 김포로 넘어가는 첫 번째 고개이자 김포시의 관문과도 같은 천등고개를 소개한다.

글 황인문 시민기자 도움말 윤순영(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

한양 가는 마지막 고개

김포를 관통하는 48국도를 지나다 보면 ‘천등(天登)’이라는 이름 자체가 궁금증을 부른다. 고갯마루에 붙여진 예사롭지 않은 이름의 유래부터 살펴보자. 『해동지도』, 『광여도』, 『여지도』 등 옛 지도엔 이 고개가 천등산(天燈山)에 속한 천등현(天燈峴)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양으로 가는 마지막 길목, 천등고개는 조선시대 김포와 강화 사람들이 한양에 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했다. 많은 사람이 오고 가며 잠시 머물렀으니 이야깃거리 역시 구설로 이어졌겠다. 강화에서 농사짓던 원범(철종)이 한양에 갈 때 고개가 너무 높아 잠시 쉬었다 가자는 소리가 천등소리 같았다 하여 ‘천등고개’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또 이곳의 가파른 지형 때문에 걷기 힘든 데다가 산적들이 자주 나타났다고 한다. 이를 물리치고 안전하게 고개를 넘으려면, 사람 천 명이 필요하다는 말에서 유래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도로 확장으로 키가 작아진 고갯마루

천등고개는 원래 이름에 걸맞게 하늘(天)을 찌를 듯 높이 솟은 가파른 산이었다. 향산 마을의 앞산이었고, 신곡 마을의 뒷산이었다. 소나무와 갈참나무 등 참나무 군락지였다. 고갯마루에 오르면 벌말, 평리, 홍도 등 사방으로 드넓게 펼쳐진 평야가 한눈에 들어왔다. 고갯마루를 가로지르는 48국도는 60년대까지만 해도 뿌연 흙먼지가 날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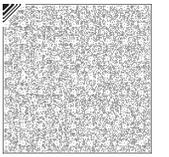
외길이었고 차선도 없었다.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차량은 힘에 겨워 보였고 양쪽에서 차가 마주치기라도 하면 한 차가 길옆으로 양보해 줘야 가까스로 빠져나갈 수 있었다. 지금은 넓게 8차선까지 확장됐지만 90년대 초반 해도 왕복 2차로에 불과했다. 90년대 이후 최근까지 확장공사가 이어지면서 도로가 넓어지는 것에 반비례해 천등고개는 낮춰졌다.

그저 지나가는 버스정류장의 기억

아픈 역사도 간직하고 있다. 50년대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민간인이 이곳 천등고개에서 학살당했다. 이념을 앞세워 총을 겨누고 고갯마루에 피를 뿌렸다. 세월이 흘렀지만 고촌 토박이 주민들에겐 잊지 못할 상처와 기억으로 남아있다. 수백 년을 이어오며 몸집을 키웠을 고갯마루는 고작 반세기 만에 옛 모습을 완전히 잃었다.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인 고갯마루에선 더 이상 평야도, 나무도, 하늘도 볼 수 없다. 등줄기 식혀주던 바람도 머물지 않는다. 건조한 풍경 속에 장곡과 신곡 사이,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정점에 ‘천등고개’라는 버스정류장 이름만이 작은 호기심을 일으킨다. 세월의 흐름에 덧씌워지고 새롭게 변모하는 세상의 이치를 거스를 순 없다. 다만 사라지는 것에 대한 기억이자, 살아가는 것에 대한 되짚음이 때론 삶의 위안이 되진 않을까. 고갯마루에서 잠시 상념에 빠졌다.

가파른 고개였던 옛 모습과 달리 넓게 확장된 천등고개의 현재





엄마들이 그린 추억의 기록... 그림책 작가된 ‘함께하는 맘’

‘함께하는 맘’은 지역의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공동체다. 결혼과 육아, 이주 등으로 경력이 끊겨 사회활동에 주저하던 여성들이 그림책을 내며 작가가 됐다. 이들의 성과를 공유하는 북 콘서트를 <김포마루>가 함께했다.

글 편집실(K)

경력단절여성 18명이 선보인 그림책

최근 김포시 통진읍 동을산리 가을 들녘 한가운데 한 여성이 포근한 미소를 띤 채 섰다. 애니메이션 주인공을 떠올리게 하는 목소리로 여성이 말문을 열자 모두가 집중했다.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동화구연 하나를 들려줬다.

“넌 누구니? / 나는 아주 느려 / 그리고 순하지 / 가끔 일이 꼬이면 화가 나기도 해 / 하지만 사람들과 어울리고 / 말하기를 즐기는 / 나는 말이야 / 하하하 하림이야.”

구절마다 음색을 달리하며 온몸으로 낭독을 마치자 환호가 쏟아졌다. 이날 행사는 김포 관내 마을공동체 ‘함께하는 맘’이 마련한 ‘김포 여성들의 BOOK 콘서트’이자 정하림 작가가 지난 1년간 공들인 그림책 <바다 위로 이어지는 나의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는 순간이었다. 경력단절여성이던 그가 아들과 함께 직접 쓰고, 그리고 색을 입혀 완성한 예쁜 추억의 기록은 여느 기성 작품의 성취감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정하림 작가는 초등학교 4학년과 2학년 자녀를 둔 엄마다. 지난해 무릎을 심하게 다친 후 거동조차 힘들 때 이 같은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우연히 접하고 참여했다.

함께하는 맘 공동체는 지역의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 심리적·경제적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출발했다. 시작은 지난 2019년 김포시 사회적경제마을센터 수강생이었던 5명의 엄마였다. 공동체 활동의 필요성을 느낀 이들은 함께하는 맘을 결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북 콘서트는 함께하는 맘 공동체 활동 2년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함께하는 맘은 올해 ‘그림책아트코칭’ 과정을 10주간 진행했다. 결혼과 육아, 신도시 이주 등으로 경력이 뚝 끊겨 사회활동에 주



함께하는 맘 공동체 김희경 대표

저하던 여성들이 고민을 소통하며 서로의 역량과 재능을 일깨워줬다. 그렇게 18명의 그림책 작가가 탄생했다.

“김포에서 함께 달려나가는 공동체 될 것”

정하림 작가를 비롯해 문지연 <꿈>, 허순영 <점으로 놀자>, 김순영 <나의 꿈이 되었어요!>, 채금옥 <자라나고 있어요>, 허유리 <문어 엄마>, 김소현 <마음의 섬>, 빈소희 <영우야>, 허신영 <김포 고촌 이야기1>, 변은정 <나의 성장기>, 조주연 <동생벌을 찾아서>, 황지영 <똥꼬 아저씨의 하루>, 조아름 <어여쁜 꽃을 피울 너에게>, 황연숙 <혼자가 아니야>, 고은혜 <예쁜리본>, 이모은 <김포>, 이영주 <달퐁이의 스케이트보드> 작가는 세상 하나뿐인 이야기를 아기자기하게 녹여냈다.

엄마이자 여성들이 김포에서 더 많은 목소리를 냈으면 하는 바람도 이번 행사에 포개어 있었다.

‘김포’를 주제로 무대에 오른 이영주 작가는 “출생·나이·가치관이 다 달라도 우리는 지금 김포에 살고 있고, 그들이 있기에 김포가 발전하고 꿈꾸는 도시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창작 경위를 설명했다.

또 허유리 작가는 “지난해 만우절에 거짓말처럼 암 선고를 받고 1년째 투병 중이다. ‘문어 엄마’는 그동안 나의 투병으로 가족들이 받았을 상처를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 만든 책”이라고 했다. 허 작가는 평온한 어조로 항암치료를 받는 과정에서의 신체적 변화, 이에 따른 아이의 천진한 위로, 가족을 향한 고마움을 고백해 객석을 숙연하게 했다.

김희경 함께하는 맘 대표는 “함께하는 맘은 마을공동체이고, 엄마이고, 마음이고, 공간이고, 자라나고 있다”며 “북 콘서트가 끝이 아니라 2022년도를 달려가는 공동체가 될 거라고 믿는다”며 지역사회를 응원할 당부했다.



함께하는 맘 공동체 회원들





‘한강을 누리는 도시, 김포’ 현실이 되다

50여 년간 김포시민들의 강변 출입을 막았던 철책이 걷히며 한강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현대사의 잔상에서 평화와 희망의 상징으로, 자연이 살아있는 힐링 공간으로 변화될 김포 한강변.
이날을 누구보다 기다려왔던 시민들의 오랜 기대와 바람을 들어본다.

글 정경욱 시민기자 사진 홍보담당관 미디어팀 제공

김포한강하구와 염하(김포·강화해협)를 둘러싸고 있는 철책은 1968년 김신조 침투사건을 계기로 70년대 초 설치됐다. 그로 인해 반세기가 넘도록 민간인들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됐을 뿐만 아니라 철책은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기도 했다. 한강하구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 달라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면서 2008년 합참의 승인으로 ‘철책 철거 사업’이 추진됐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부분 철거(2012년 서울시계~김포대교 약 1.3km 구간 철책 우선 철거)만 진행된 상황이었다. 그러다 올해 1월부터 군과 협의를 재개하고 협약을 체결해 7월 다시 순차적으로 철거가 시작됐다. 그리고 지난 11월 11일, 오랜 시간 ‘철책 철거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했던 군 감시장비 관련한 소송에서 김포시가 최종 승소하며 한강변의 철책 철거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철책이 제거된 둔치에는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 등이 조성되고, 평화누리길과 경인아라뱃길을 연결하는

둘레길이 만들어져 시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이다. 재개된 철책 철거 소식에 많은 김포 김포시민이 적극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포지역은 한강을 인접한 지자체 중 유일하게 도민들이 한강을 접할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었다. 그간 한강을 품고 살면서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아쉬움이 누구보다 컸을 시민들이다. 오랜 시간 사

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한강하구는 여전히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녔을 테지만 우리 눈에는 철책으로 조각난 풍경이 전부였으니 말이다. 굳이 멀리 가지 않고 우리 동네 한강변에서 약속을 잡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 시원한 강변길을 걸으며 한강하구의 멋진 모습을 제대로 마주할 그날을 기대해 본다.



‘철책 철거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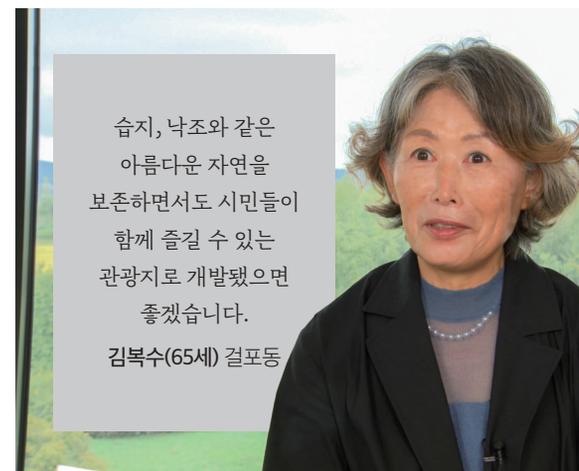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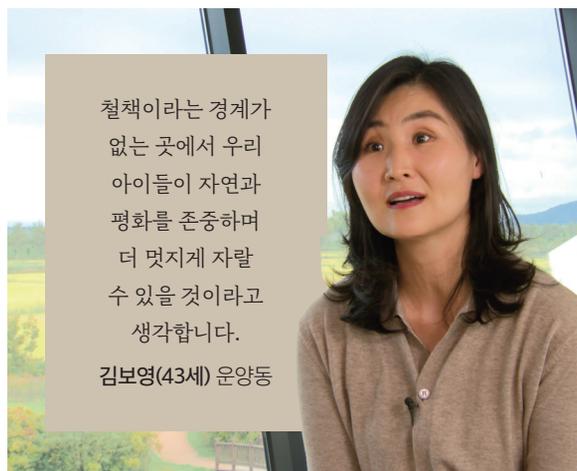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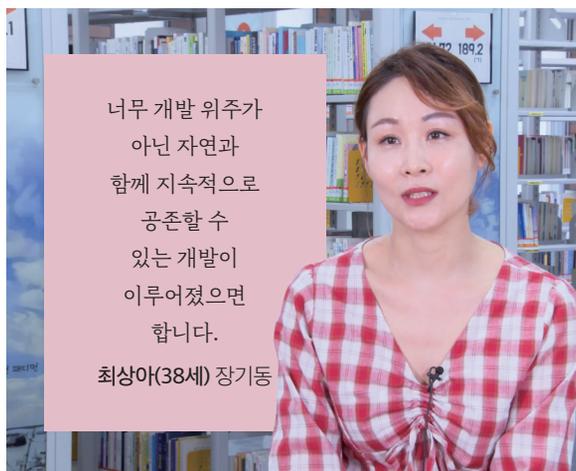
한강이 우리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게 가장 기쁜 것 같아요. 공원이 조성돼서 시민들이 한강을 더욱 가까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서(18세) 장기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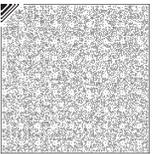
김포에 한강이 보이면서도 서울의 한강공원처럼 활용되지 않아서 아쉬웠는데, 이제 친구들과 산책로도 걷고 자전거 도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기대됩니다.
박수현(15세) 풍무동

너무 개발 위주가 아닌 자연과 함께 지속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최상아(38세) 장기동

철책이라는 경계가 없는 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연과 평화를 존중하며 더 멋지게 자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보영(43세) 운양동

습지, 낙조와 같은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면서도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복수(65세) 걸포동





아시아를 대표하는 경관 명소 ‘금빛수로’ 문화를 누리는 ‘걸포중앙공원’과 ‘마송공원’



김포에는 계절마다 다른 풍경으로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공원들이 많다. 다양한 시설을 갖추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편의를 선사하는 이곳. 여유와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김포의 아름다운 경관 명소들을 소개한다.

글 편집실()

아시아를 대표하는 경관 명소로 우뚝

대한민국 최초의 캐널시티(Canal City) 김포한강신도시의 ‘금빛수로’가 2021년 아시아 도시경관상을 받으며 아시아 대표 경관 명소로 우뚝 섰다.

대한민국 최초의 수로도시(Canal City)를 관통하는 ‘금빛수로’는 총연장 2.68km의 인공수로로 라베니체와 수변공원, 리버워크와 어우러져 김포시민 모두가 찾고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수변공간(실개천 포함 11.7km)으로 재탄생했다.

특히, 라베니체(La-Veniche)는 김포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모던한 스타일의 상가 건축물과 아름다운 수변공간이 이국적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 금빛수로에는 수상레저시설(Moon Boat)과 음악분수, 피크닉 광장, 쇼핑몰, 산책로 등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거리 공연과 전시회, 플리마켓, 전시회, 이벤트 등 다채로운 행사를 경험할 수 있다.

라베니체, 야간경관과 수상레저시설 등으로 관광객 ‘눈길’

김포한강신도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금빛수로

라베니체에 경관조명이 추가 설치되는 등 야간경관이 한층 다채로워졌다.

유럽풍으로 조성된 수변상가의 야간경관 특색을 살려 라베니체 주변 수로 양방향 1.3km에 LED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보트하우스 선착장 맞은편에 달 조형물을 설치해 음악분수와 함께 조화로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또한 라베니체 상가 사이에 위치한 난파선과 열기구 조형물에 조명을 추가해 관광객과 수상레저시설의 문보트, 패밀리보트 이용객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수상레저시설 운영이 종료되는 12월부터 2월 사이에는 금빛수로 수위를 낮추고 물이 어는 시기에 얼음 썰매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포의 빛을 통해 문화를 누리는

걸포중앙공원 ‘문화빛 누리터’

계양천과 나진포천을 따라 조성된 걸포중앙공원은 김포시 내에서도 상징적인 공원이다. 9만 6,000㎡의 넓은 면적과 바닥분수, 교통공원, 산책로, 운동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인접 도시와 접근성도 우수해 명소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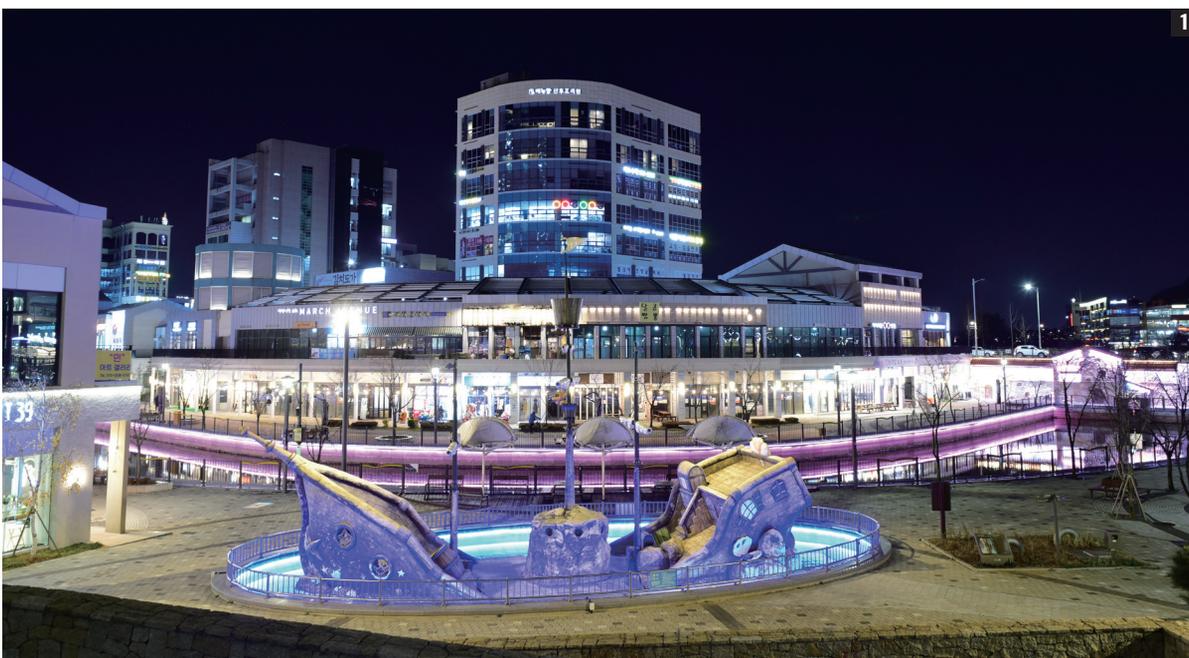
걸포중앙공원은 김포시민뿐 아니라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 인스타그램 블 공간에 MZ세대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된 가족 단위 관광객을 타깃으로 미디어 콘텐츠, 인터랙티브 조명 등 빛을 통해 문화를 누리는 김포시 야간 명소로 조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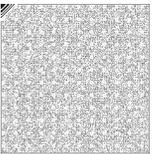
산책하기 좋은, 머물고 싶은, 마음을 달래주는 마송공원 ‘산책빛 누리터’

마송리에 위치한 마송공원은 지역 주민들이 편히 산책하며 여유를 즐기는 생활밀착형 공원이다. 주민들이 귀가하는 저녁시간에도 반려동물과 산책하거나 잠시 휴식을 취하러 방문하는 공원으로 운동공간, 휴게공간, 무대광장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요소를 가지고 있다.

마송공원은 화려함과 정온함이 공존하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 야간산책을 즐기는 주민을 타깃으로 안전한 야간 산책을 도모하고 여유를 즐기는 친근한 야간 공간으로 조성한다.

1. 금빛수로 산책로에 설치된 경관조명
2. 걸포중앙공원 누리터 관문(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3. 마송공원 여가 무대광장(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참여·모집



따뜻함이 통하는 온溫通通 후원축제

일시 12. 9.(목)~ 12. 10.(금)

내용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취약 어르신 지원기금 마련

- 바자회 : 의류, 잡화, 식품 등 다양한 제품 판매(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 노래자랑 : 지역주민과 어르신 모두가 함께하는 노래자랑
- 작품전시회 : '위드코로나'를 주제로 한 지역 어르신들의 다양한 작품 전시

장소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 및 복지관 유튜브, 온라인쇼핑몰 등

안내 홈페이지(www.gpnsenior.org) 또는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 카카오톡 채널

문의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 984-0108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모집

대상

- 만 18세 이상, 김포시 거주자
- 장애인 복지에 관심이 있고,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자

내용

- 활동내용: 장애인 이용인 생활 지원(가사 지원, 외출 지원 등)

- 활동장소: 서비스 이용인 가정

- 활동시간: 월 48시간 근무(주중 9~18시)

- 급여조건: 경기도 생활임금 기준에 따름

※ 고용/산재보험, 상해보험 필수 의무가입

접수 수시

문의 김포시장장애인복지관 070-7327-4904

현장 중심 직업재활센터 취업희망자 추가 모집

대상 만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및 특수교육 대상자

내용

- 취업을 위한 직무역량 강화 및 직장적응훈련

- 취업 후 적응지도를 통한 안정적인 취업생활 유지

접수 수시

진행 주 5일, 3시간

장소 사업체 또는 온라인 zoom

문의 김포시장장애인복지관 070-7327-7100~7104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대상자 모집

운영 연중 상시모집

대상 만 9~18세 학교 밖 청소년

장소 김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중봉청소년수련관 2층)

검진 김포 관내 학교밖청소년건강검진가능 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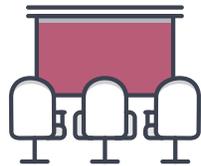
(김포우리병원, 뉴고려병원 등)

항목 신체계측, 문진 및 진찰, 혈액&간염(B형, C형)&결핵검사 등

비용 무료 (전액 국고부담)

접수 및 문의 김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980-1694

교육



김포아트빌리지 아트센터 기획전

'Tell Me, 글렌데일 이야기'

일정 11. 27.(토) ~ 2022. 2. 6.(일)

내용 김포시 자매도시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가 '인권과 평화'의 도시로 발돋움하기까지 과정 및 현재를 보여주는 초청 전시

장소 김포아트빌리지 아트센터 전시실

관람료 무료

문의 김포아트빌리지 아트센터팀 996-7484

마에스트로 금난새의 크리스마스 기획공연

공연명 마에스트로 금난새의 Merry Christmas

일시 12. 25.(토) 16:00

장소 김포아트홀(사우동)

출연 지휘자 금난새, 바이올린 김혜지, 테너 허영훈, 하모니카 이윤석

관람료 R석 3만 원, S석 1만 원, 초등학생 이상 관람

문의 예술기획팀 996-1604

2022년 문화활동팀 청소년자치기구 모집

운영 2022. 연중

모집 1차 서류전형-11. 16.(화) 10:00 ~ 12. 21.(화)

2차 면접전형 예정- 2022. 01. 08.(토) 자치기구별 상이

대상 김포시 14~24세 청소년 / 2022년 기준 /

모집 분야별 인원 상이

분야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자원봉사활동단, 청소년미디어제작단, 청소년동아리

내용 매월 정기모임, 청소년 활동기획, 봉사활동, 창의적 제작 활동, 분야별 동아리 활동 등

혜택 우수 청소년표창, 활동별 봉사활동시간 제공, 활동 예산 지원

접수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 담당자 이메일(중봉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참조)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중봉청소년수련관 문화활동팀

청소년동아리 980-1671

청소년미디어제작단 980-1672

청소년운영위원회 980-1673

청소년자원봉사활동단 980-1674

청년 멘토링 특강

일시 12. 31.(목) 14:00~16:00

신청 통합일자리정보 홈페이지 또는 전화 신청

내용 채용 전망, 취업 전략 관련 특강(온라인)

문의 김포일자리센터 996-7615~8

지원·안내



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온라인 심리검사 안내

운영 월~금(9:00~18:00)

모집 연중

내용 심리검사 신청 시 온라인 코드를 발송하여 각 가정에서 심리검사(성격, 진로, 학습)실시 후 비대면 해석상담(전화, 화상) 진행

대상 관내 9~24세 청소년

장소 온라인 비대면 진행

비용 각 검사당 5,000원(법정 한부모가족 및 기초수급대상자 면제, 다자녀 50% 감면)

접수 전화 문의(국번 없이 1388, 휴대전화: 지역번호+1388)

문의 1388전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980-1689

청소년 이동쉼터 '더심' 거리아웃리치 운영

운영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유동적 운영(홈페이지 참조)

내용 위기(가능) 청소년에 대한 상담·휴식·의료지원·문화 활동·예방교육 등 현장지원

대상 관내 청소년 누구나

주요 장소 및 운영시간

- 월요일 : 관내 도서지역(통진, 하성, 월곶) 홍보아웃리치 및 학교연계사업 신청 학교 / 09:00 ~ 18:00

- 화요일 : 비거점 지역(장기) 홍보아웃리치 및 학교연계사업 신청 학교 / 09:00 ~ 18:00

- 수요일 : 고촌읍 행정복지센터 앞 광장 / 15:00 ~ 21:00

- 목요일 : 사우동 학원가 횡단보도 / 15:00 ~ 21:00

- 금요일 : 구래역 4번 출구 광장 / 15:00 ~ 2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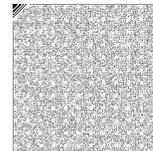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fgy.or.kr/st) 공지사항 참조

문의 김포시청소년이동쉼터 980-1605~9, 1618~9

순 우리말, 김포부터 출발

12월의 주제 : 참여하시겠습니까? 추억의 놀이

떡지치기	놀이떡지 한 장을 땅바닥에 놓고, 다른 떡지로 쳐서 뒤집히면 따먹는 아이들 놀이
구슬치기	구슬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의 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술래가 눈을 감고 있는 사이에 조금씩 술래 가까이 다가가서 술래를 손바닥으로 치고 도망가는 놀이
자치기	짚막한 나무토막을 긴 막대기로 쳐서 날아간 거리를 재어 승부를 정하는 놀이
공기놀이	다섯 개 또는 그 이상의 조그맣고 둥그란 돌을 가지고 던져 손으로 잡으며 노는 놀이
비사치기	납작한 돌을 세워놓고 얼마쯤 떨어진 곳에서 작은 돌을 던지거나 맞혀 넘어뜨리는 놀이 (※ '비석치기'는 '비사치기'의 방언)
말뚝박기	공격과 수비 두 편으로 나누어 수비 편에서 말을 만들고 공격 편이 그 말을 타면서 노는 놀이



오늘 경기민요를 불러야 하는 이유

경기민요합창단 윤소리 단장

20여 년간 김포에서 경기민요를 부른 민간단체가 있다. 사단법인 경기민요합창단이다. 합창단은 경기민요를 통해 일상의 시름을 씻어내고 넘치는 흥을 시민들과 나누었다. 오랜 세월 단체를 유지한 비결을 윤소리(72) 단장에게 물었다.

글 이청 시민기자

더불어 만든 시간

지난 10월 30일 (사)경기민요합창단이 통진두레 문화회관에서 ‘평화의 강, 한강 아리랑’을 주제로 20주년 기념 공연을 펼쳤다. 약 2시간 동안 선보인 이번 공연은 선유가로 시작해 태평가, 아리랑, 밀양 아리랑, 흥타령 등으로 이어졌다. 경기민요 가락에 내빈과 1백여 명의 관객은 연신 어깨를 들썩였다. ‘김포 금쌀 타령’과 ‘내 사랑 김포’를 끝으로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합창단의 열정을 향한 관객들의 감사와 응원의 박수였다.

개인 단체가 10년을 넘기는 일은 흔치 않은데 무려 20년이다. 긴 세월 동안 경기민요합창단은 경기 민요를 통해 시민들과 흥을 나누었다. 매년 1회의 정기공연은 물론 경로당, 요양원, 복지관 등에서 진행한 재능나눔 봉사 등 그간 올린 크고 작은 공연을 합치면 2천회가 넘는다. 비결이 뭘까. 경기민요합창단을 이끄는 윤소리 단장은 당연하다는 듯 입을 열었다.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가족처럼 여긴 덕분이죠. 선생과 제자가 따로 있지 않아요. 격식을 차리지도 않고요.”

수평적인 관계에서 자율성이 피어났다.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개진하고 스스로 연습하는 단원들이 있어 20주년 공연이 가능했다고 윤 단장은 거듭 강조했다.

한편 그녀를 움직이게 한 힘은 김포에서만 400년 넘게 거주한 남원윤씨 자손으로서의 사명감과 단원들에 대한 책임감이었다. 조상에게 또 단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자 윤 단장은 최선을 다했다.

“아이 다 키워놓고 상실감을 느끼던 사람이 우리

합창단에 들어와서 민요를 부르며 밝아지고 또 봉사를 통해 사회에 환원하며 자신감을 키워요. 그러니까 제가 설 수 있나요.”

민요를 통해 더불어 산다는 것. 이것이 경기민요합창단이 오늘날까지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진짜 이유였다.

내일을 위한 노래

우리 음악의 매력은 최근 재조명을 받고 있다. 이날치 밴드의 ‘뽀 내려온다’를 시작으로 국악과 힙합을 결합한 ‘Feel the rhythm of Korea’ 시리즈가 대표적이다. 트로트 열풍 역시 맥을 같이 한다. 흐름에 발맞춰 교육 현장에서도 민요를 찾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교육 요청이 늘어 윤소리 단장도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고. 그렇지만 아직 목이 마르다.

“고 박동진 명창의 말씀이 우리의 것은 소중한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것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학교에서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민요를 가르쳐야 한다는 게 윤 단장의 주장이다.

“민요는 옛것이고 오늘 배우기엔 어려운 노래라고 막연히 멀리하지만 해보지도 않고 어렵다 하면 되나요. 거기다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 음악에 끌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녀는 슬며시 웃음을 지었다. 정말이다. 살다 보면 어느새 “짜증은 내어서 무엇허랴” 흥얼거리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요즘처럼 코로나로 우울한 날에는 맑고 경쾌한 경기 민요가 더욱 반갑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코로나의 종식도 머지않은 듯 보인다. 경기민요 한자락으로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다시 찾을 일상을 기다려 보면 어떨까. 얼씨구나 좋다!



독자 퀴즈

Quiz

매년 명절이면 장기동의 한 거리는 지역민들이 기부한 후원물품으로 가득 찹니다. 자영업자들이 시작한 후원 행사는 주민들과 복지단체들이 참여하면서 규모가 더욱 커졌는데요. 이에 김포복지재단은 2019년에 이곳을 ‘000 거리’라고 지정했습니다. 이 거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 나눔의 거리 2. 따뜻한 거리 3. 후원의 거리

독자퀴즈 정답

독자퀴즈 정답과 구독소감 등을 12월 20일까지 김포시청 홈페이지(뉴스포털 → 김포마루 → 독자이벤트)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주소 김포시 사우중로1(사우동) 김포시청 홍보담당관

11월호 독자퀴즈 이벤트



김○석 외 9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사항

김포마루 우편 구독 및 이벤트에 수집된 개인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는 우편이나 상품발송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전화나 팩스로 신청할 경우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숫자로 보는 김포

2021년 10월 말 기준(전월 대비)



남 243,149
(▲ 132)



여 242,710
(▲ 80)



인구

▲ 212

485,859명



세대

▲ 3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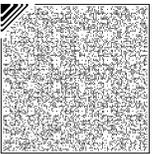
200,230세대



자동차

▲ 357

237,235대



나눔의 가치를 두배로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김포복지재단의 62일간의
나눔릴레이가 아홉번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많은 개인과 기업, 단체들이
참여해 이웃과의 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나눔의 가치를 두배로...
더 알차게, 더 감동있게 시민 여러분과
실천하고자 합니다.

시민이 시민을 돕는(시민력) 나눔의 가치 실현에
함께 동참해 주세요.

모금기간

2021년 12월 1일~2022년 1월 31일
(62일간)

기부계좌

농협 317-0002-5670-81
경기공동모금회(김포복지재단)

기부문의

김포복지재단 031. 989. 0341~2

제9회 62일간의 나눔 릴레이

